

산학민관 손잡고 '창업도시 광주' 육성

기술·창업지원사업 한자리 광주연합기술지주 출범식도

■ 제1회 광주시 기술창업주간

광주시는 24일부터 5일간 '창업도시 광주 제1회 기술·창업 주간'으로 정하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에서 '2016 기술·창업·투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기술·창업주간은 유관기관, 대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창업주간에는 광주시, 특허청,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지역 내의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술·창업 주간에는 ▲광주연합기술지주 출범 ▲2016 창조기술 이전 로드쇼 ▲제20회 무등벤처포럼 ▲벤처육성투자설명회 ▲스타트업-청년 인제 매칭데이 등이 열린다.

◇지역대학 특허기술 활용

지역 대학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 (주)광주연합기술지주(대표이사 장민기)가 24일 출범했다. (주)광주연합기술지주는 대학이 가진 우수기술을 적극 발굴해 지주회사를 통

해 창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대학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분산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총괄운영, 6개 참여대학은 우수 특허기술 발굴·연구개발,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연구소기업 등록 등 창업지원, 광주지식재산센터는 특허기술상품화 지원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주)광주연합기술지주는 오는 2020년까지는 신규 창업 25개, 매출액 257억 원, 고용 195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의료부품 기술 이전 상담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열리는 '2016 광주창조기술거래 로드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및 의료소재부품 분야 우수기술 설명회와 기술이전 상담을 실시한다.

로드쇼는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 과 연구소·점단기술사업 설명회, 삼성전자 개방특허 설명·상담 등이 진행된다.

기술이전 대상기술은 896건이다. 친환경자동차부품 우수기술 30건, 의료소



광주시와 (재)광주테크노파크는 24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김종식 경제부시장과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남부대·광주여대 등 6개 참여대학 총장·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연합기술지주 출범식을 가졌다.

재부품 우수기술 28건, ICT산업 우수기술 45건, 백색가전산업 무상기술 793건 등이다.

로드쇼를 통해 광주 주력산업인 친환경 자동차부품 등 유망기술을 소개하고 상담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특허기술 무상이전은 연구 성과 공유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김영관)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26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0회 무등벤처포럼을 개최한다.

무등벤처포럼은 2013년 11월 광주·

전남지역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교육, 상담, 투자 연계 등을 통한 안정적인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결성됐다. 우수 창업기업 성공사례, 투자역량강화, 엔젤투자 확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창업보육 성공 사례와 창업투자 정보동향 등에 대한 특강이 열린다. 창업기업과 엔젤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우수 아이템을 소개하고 투자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는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된다.

광주전남비협의회 등 지역의 창업지원기관과 엔젤클럽, 창업기업 등이 의기투합해 지역 투자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전남농협, 일본 바이어 초청 산지투어

정남진장흥농협 시설 관심...1억 수출 계약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견표고버섯 일본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최근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 산지유통센터에서 일본 견표고버섯 바이어를 초청해 산지투어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지투어를 통해 견표고버섯 홍보와 1억원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정남진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견표고버섯 일본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최근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 산지유통센터에서 일본 견표고버섯 바이어를 초청해 산지투어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지투어를 통해 견표고버섯 홍보와 1억원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정남진지역본부는 이번 행사는 일본 내에서 견표고버섯을 40년 이상 유통하고 있는 유통전문 바이어를 초청했다. 바이어들은 정남진장흥농협 APC의 견표고버섯, 선별 과정, 다양한 선물세트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남진장흥농협은 2013년부터 중단된 한국산 견표고버섯의 일본 수출시장을 다

시 열기위해 바이어와 접촉, 지난 6월 약 2억원의 물량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또 직접 수출자로서 홍콩 외에도 대만·싱가포르까지 수출 국가를 확대하고, 관내 무산김·매실가공식품 등 특산품으로 수출품목 다양화 하고 있다.

강남경 본부장은 "정남진장흥농협은 지속적인 바이어관리를 통해 지역 대표 특산품인 견표고버섯 외에도 지역 특산품까지 직접 수출하고 있다"며 "바이어를 산지로 초청해 제품선별부터 포장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현장투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산업분야 연계·품질평가 제도화 추진

전남진흥원, 28일 실감미디어 세미나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정렬)은 오는 28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16 실감미디어 품질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한국전자거래학회·호남대학교와 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2016년 추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실감미디어 품질평가 시범서비스 신뢰성 강화와 타 산업분야와의 연계 및 기술 교류를 통한 품질평가체계의 제도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실감미디어 품질평가 시범서비스 및 체험제품의 사용자 경험 기반 품질평가체계 발표(연세대 강연아 교수),

품질평가체계 시범 테스트 시연(고흥 나로 우주센터 3D 콘텐츠, '아름다운 남도 동행길' HMD VR 실감 콘텐츠), Smart X Lab(광주과학기술원 차병래 박사), 신경망 딥러닝의 이해(전남대 김수형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감미디어 품질평가체계의 대·내외적 홍보 확산 및 보급기반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와 연계로 체계적인 품질평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홈페이지, 실감미디어팀(061-339-6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중흥토건, 순천 신대지구 분양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1,464가구...28일 개관

시공능력평가 순위 전국 33위의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순천 신대지구에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오는 28일 개관한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5번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2개동 ▲전용 59㎡A 753가구 ▲전용 59㎡B 157가구 ▲전용 74㎡ 258가구 ▲전용 84㎡ 298가구 등 총 1,464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신대지구는 약 290만㎡ 규모에 달하는 신도시로, 3만명 이상의 인구가 계획된 여수와 순천, 광양지를 아우르는 전남동부권의 거점 신도시로 주목받는다.

인근 대형 산업단지인 순천, 여수, 광양 등 주변도시에서 유입되는 배후수요가 풍부해 교통, 교육, 상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속속 갖춰지고 있다.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에듀힐스'는 중흥건설그룹이 신대지구에 짓는 9차 아파트로 1~8차아파트가 이미 성공리 분양했다.

단지는 '에듀힐스'는 이름에 걸맞게 가정 신대초교(2017년 3월 예정)와 승평중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한다.

반경 1km 내에는 신대유치원, 좌야초교, 매안초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신대지구 내 교육여건이 좋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지 동쪽으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신대지구 택지지구 외곽을 둘러



중흥 S-클래스 에듀힐스 조감도.

싼 생태회랑길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도보거리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근린공원 남쪽에 위치한 순천 상사육너눔을 이용해 주말에 등산 또는 트레킹 등의 활동적인 여가생활도 가능하다.

동순천IC를 통해 광양, 진주 등 인접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대JC를 이용해 여수로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동쪽으로는 병원, 은행 등 편의 시설이 인접해있고, 단지 남쪽으로는 메가박스 신대 등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

다.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우수한 통풍과 채광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중흥건설은 이미 순천 신대지구에만 8,700여 가구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입주하는 오는 2019년 8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순천시 조례동 820번지 조례호수공원 인근에 마련됐다.

분양문의 061-727-1000. /서미애 기자

정보통신기술 융합 아이디어 발굴

호남ICT융합컨퍼런스 내일 김대중센터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호남ICT융합컨퍼런스가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호남ICT융합컨퍼런스는 ICT·SW 산업 관련 최신 이슈와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ICT·SW관련 신규 아이디어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개 분야 12개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송길영 다음카카오 부사장이 '적응, 그리고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한다.

3개 분야는 ICT·SW융합기술의 미래, 미래 ICT·SW 서비스 및 콘텐츠, ICT·SW실용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에너지 IoT와 가상현실(VR), 머신러닝 등 ICT융합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호남지역 ICT·SW 기업의 SW용

합 우수 제품을 전시·시연한다. 투케이이시템즈는 '상당품질평가 컨택센터 솔루션', 팔철구삼은 사물인터넷 미니카 '콩이', 에스엠소프트웨어는 '조선소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K-ICT클라우드서비스 시범적용사업),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저작권보호센터) 홍보관을 통해 기업 지원 사업 설명도 진행된다.

호남ICT융합컨퍼런스는 IT관련업계 종사자와 관심자, 대학생, IT 관계자 등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황애란 기자

BIXPO 2016

To the Future of Electric Power Technology

2016. 11. 2(수) - 4(금),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 신기술전시회 : 400부스
- 국제발명대전 : 120부스
- 국제컨퍼런스 : 미래 전력기술에 관한 20개 세션
- CTO포럼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www.bixp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00 억원

기업간 수출수입
54건의 사업기회 창출

30,000+ 방문자

2,722 컨퍼런스 참석자

217 발명품을 포함한
217개 기업 전시회 참가

30 개국

해외 전력사(CEO, CTO) 참석

숫자로 보는 BIXPO > BIXPO 2015 Review